

“자주권 확보 위한 지방의회법 필요”

무주군의회, 지방의회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 의원 만장일치 채택

무주군의회(의장 이해양)가 지역의 현황에 맞는 입법활동을 위해서는 조직을 스스로 규정할 권한이 필요하며 이를 보장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무주군의회는 25일 열린 제30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오광석 부의장이 제안한 ‘지방의회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오광석 부의장은 건의문을 통해 “2022년 1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이 가능해져 자치분권 강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그러나 정원 계획과 예산편성권이 집행부에 예속되어 있어 진정한 독립기관으로서 의회가 제 역할을 수행하는데 결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권과 조직권이 단체를 이끄는 핵심이라고 강조한 오광석 부의장은 “지방의회가 지역의 현황에 맞는 입법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조직을 스스로 규정할 수 있어야 하고 자치입법권과 예산편성권이 법률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중앙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국회의 역할과 권한을 보장받는



무주군의회는 25일 열린 제30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오광석 부의장이 제안한 ‘지방의회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주군의회는 채택한 건의문을 통해 “발전된 국민 생활수준과 성숙한 민주 의식에 맞는 기관 운영을 위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의 목적과 역할, 운영방식이 명기된 지방의회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법’ 제정시 지방의회가 조직·인사·사무처

리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이해양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무주군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지방의회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이 의회가 집행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견제·감시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하며 의회와 지방자치의 발전, 나아가 무주군의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한우랑 사과랑 축제 앞두고 현장행정 나서

송주섭 장수군 부군수, 누리파크 주요 사업장 점검

송주섭 장수군 부군수는 25일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대비해 누리파크 주요 사업장 점검에 나서는 등 발 빠른 현장행정에 나섰다.

이번 현장 방문은 민선8기 역점 추진 정책인 ‘100만 문화관광도시 장수’를 실현하기 위해 오는 9월 14일부터 열리는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기간 동안 누리파크에 방문할 관광객들에게 선보일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개괄

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 부군수는 “사업 추진 도중 발생했거나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 면밀히 확인해 해결 방안을 빠르게 찾아 사업 추진력을 높이고,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송 부군수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동물카리반 등 캠프장과 야외 발물놀이장, 모험놀이터를 우선 방문해 운영상 문제점이나 방문객 불편사항에

대해 점검했다.

또한 축제 전 준공 예정인 동촌리 고분군 유적정비사업, 야간체험관광기반 조성사업, 어린이생활문화센터 및 자연놀이터, 장수사과 치유체험장 공사 현장을 차례로 둘러보며 조속한 사업 완료를 지시했다.

송주섭 부군수는 “누리파크는 올해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관광객들의 주요 방문지인 만큼 관련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수시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별 진행 상황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진안군은 25일 군청 상황실에서 청년정책위원회 및 관련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진안군 청년정책 기본계획(2024~2028년/5개년)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진안군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진안군 청년정책의 비전, 전략

목표, 정책과제를 수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며 이에 군은 지난 4월부터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여건을 분석하여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보고회는 지금까지 추진된 진안군 청년현황과 실태, 청년정책 연구

내용을 점검하고 연구를 통해 도출된 사업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 개최했다.

아울러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군에 맞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취업 및 고용 △창업 △문화·여가 △복지·삶의 질 △거버넌스 등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춘성 진안군수는 진안군 여름 대표 농산물인 진안고원 수박의 첫 출하를 기념해 진안군 산지유통센터 수박선별장을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진안고원 명품 수박 본격 출하

전춘성 군수, 산지유통센터 수박선별장 방문·농가 애로사항 청취

진안군 여름 대표 농산물인 진안고원 수박이 25일 본격적인 출하를 시작했다.

이에 전춘성 진안군수는 첫 출하를 기념해 진안군 산지유통센터 수박선별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더불어 수박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올해 진안군 수박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20% 정도 늘어난 230여 헥타르(ha)다. 이중 3,400여톤(158농가, 83ha)의 수박이 다음 달 12일까지 진안군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을 통해 출하되며 이에 따른 매출액은 약5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군에서 공동선별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기존 50%→변경 100%)됨에 따라 공선 참여 농가의 비용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

고 있다.

다만, 지난 14일 전후 장마전선의 영향에 의한 집중호우 피해로 수박 생산량 감소가 우려되고 있어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음에 따라 진안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최홍진 대표는 “올해 수박 공선 참여농가 및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증가하여 수박 출하량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예기치 못한 기상상황으로 수박 출하량 및 단가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며 애로 사항을 토로했다.

이에 전춘성 진안군수는 “이상 기후로 인한 호우피해로 수박 재배 농가들의 어려움이 너무 크다”면서 “포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당도와 품질을 최대한 끌어올려 진안고원 수박 출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 찾아가는 과수화상병 특별교육

무주군이 6개 읍·면 사과, 배 농가 78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과수화상병 예방 및 방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은 지난 6월 말 무주군 무풍면 사과 6농가 2ha규모에서 화상병이 발생하면서 무주군 전역이 방제권역으로 전환된데 따른 것으로,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지도사들과 농촌진흥청 전문가로 강사진을 꾸린 무주군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의 증상과 예방방제 지침, 농가별 작업도구 소독 등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공유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과수화상병 예방 및 방제 교육은 지난 18일 무주읍을 시작으로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25일까지 적상과 안성, 무풍면에서도 교육을 마쳤다.

무풍에서는 특별히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이용환 박사’를 초청해 발생지역 현황과 대처상황, 방제, 확산방지 노력 등을 사례 위주로 교육을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26일에는 설천, 27일에는 부남면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계북면민들의날·참샘골 토마토랑 수박축제 개최

장수군 계북면은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계북초등학교와 참샘골 체육관 일대에서 제1회 참샘골 토마토랑 수박축제를 개최한다.

계북면 농특산품을 홍보하고, 지역의 특색을 살린 ‘참샘골 토마토랑 수박축제’는 주민들이 직접 기획·추진한 주민주도형 축제다.

축제 첫날에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 △마을별 민속놀이 △체육행사 등이 진행되며, 둘째 날에는 △참샘골 토마토랑 수박 OX퀴즈 △참샘골 토마토랑 수박 명랑운동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열린다. 또한 토마토, 수박 외 기타 농산물, 장수한우 특별판매장도 마련해 즐길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가득한 축제로 만들 계획이다.

이와 함께 29일에는 제74회 계북면민의 날을 함께 개최해 면민과 함께 화합하고 소통하며 그 의미를 더할 방침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천마사업단·가공업체 대상 역량 강화 교육

무주군이 지역 특산물인 ‘천마’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천마 가공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25일 무주천마사업단 세미나실에서 신상범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과 무주천마사업단(단장 여환호) 관계자, 관내 12개 천마 가공업체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품위생 안전교육(총 5시간)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는 위드유 파트너스 신철 대표(유통관리사)가 △식품제조가공 관련 법규 등의 각종 제도를 비롯해 △식품위생법 영업자 준수사항과 시설기준,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그리고 표시 기준 등 천마가공제품 생산 시 꼭 알아둬야 할 내용들을 공유해 관심을 모았다.

이날 교육을 수강한 무주군 천마 가공업체 대표들은 “식품위생법상 식품가공업체가 꼭 지켜야할 내용에 대해 오늘 교육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되새

기고 또 깊이 알게 됐다”며 “무주군의 명성 대표 특산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서 안전한 먹거리,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앞으로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천마는 안성면이 주산지로 62.7ha(3백여 농가, 전국 재배 면적의 50%, 생산량의 62% 차지)에서 연간 300여 톤이 생산되고 있다.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2019. 7. 9.)에 따라 전라북도 연구개발 특화작목으로 인정받기도 했으며 안전한 건강보조식품이라는 인식 속에서 효능뿐만 아니라 경쟁력도 최고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무주군은 100%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는(재배 시 농약이나 화학비료 전혀 사용 안함) 무주천마를 천마클러스터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전략 식품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